

자녀가 지각한 父(부)의 양성평등의식과 자존감과의 관계

채 육 희 · 홍 달 아 기 · 이 남 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정보전공)

본 연구는 세계가 지향하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가장적 인식이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성 특히 아버지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차별의 대상인 딸들은 아버지의 태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성불평등의 원인을 밝히고,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은 전라북도에 위치한 여자 중학교 1, 2, 3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분산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절반이상의 학생이 성차별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자녀들이 아버지가 양성평등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차별적인 요인으로 지적한 것이 성고정관념과 여자이기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생활규칙, 아들을 우대하는 태도, 가정에서의 집안일과 청소를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녀들이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양성평등적으로 인식하나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자녀관련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성평등태도는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가족형태를 제외한 모든 변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 거의 영향요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부모자녀관련변인에 따라 자녀가 자각하는 아버지의 양성평등의식은 부모의 학력과 직업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은 관리직, 전문직, 사무적인 집단이 양성평등적 의식을 보였다. 무직이나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집단은 타집단에 비해 사회적인 활동이 적다고 본다면 직장활동을 하는 집단은 사회적 관계를 많이 갖기 때문에 양성평등적 의식을 갖는다고 보여진다.

넷째, 부모자녀관련변인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전반적인 점수는 평균이상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 관리직의 집단이, 부모가 연애혼인 경우,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인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다섯째, 양성평등실태, 양성평등의식,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거의 모든 변인들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양성평등은 남과 여의 양자간의 관계를 떠날 수 없으므로 아버지 혼자만의 노력으론 곤란하다. 또한 환경의 중요성이 밝혀진 바와 같이 부모는 바람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성고정관념은 유아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뿐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 사회, 대중매체에서도 지속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